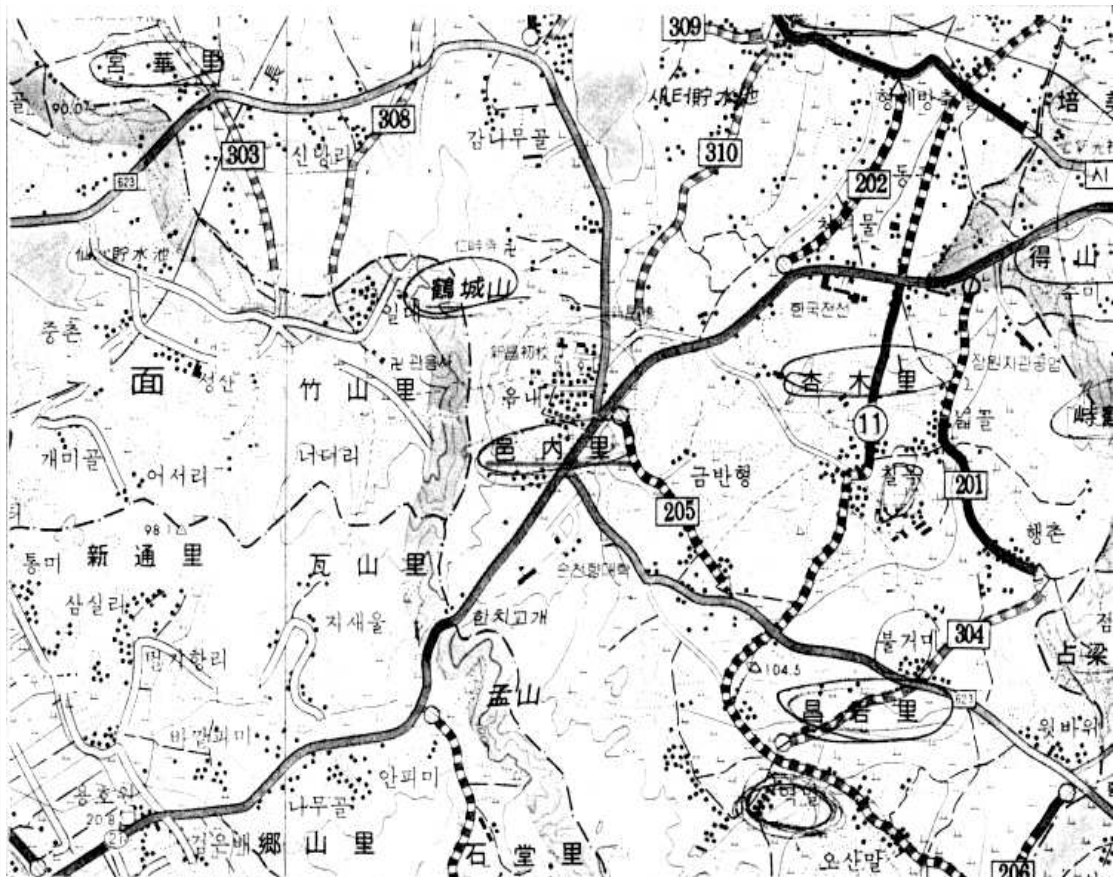


* 마을사 *

읍내리·邑內里

읍내리는 신창면의 한 마을로서 금반형, 남산, 북촌, 아사터, 절골, 주막거리, 피촌말, 향교말, 홍문거리라는 10개의 작은 부락으로 나뉘어진다. 읍내리는 남자 1254명, 여자 1155명으로 총 2409명이 읍내리 한 마을에 살고 있으며 가구수는 총 1115호에 이른다. 읍내리는 본래 군내면의 지역으로서 신창 고을의 소재지이므로 읍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동, 남산리, 홍문리, 금반형리, 유기리, 교촌리, 신대리와 대동면의 잉동 일부를 병합하여 읍내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편입되었다.

<읍내리 위치도>



☒ 읍내, 남산, 금반형 마을 (읍내리)

읍내 1리는 총칭으로 읍내라 부르며, 북촌, 아사터, 주막거리, 향교말, 홍문거리라는 6개의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읍내 2리를 남산 마을, 피촌말로 이루어 졌으며, 남산마을은 읍내 남쪽에 있는 마을이며, 피촌말은 옥디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백정이 살았다하여 유래 되었다.

읍내 3리를 금반형이라 하며, 금반형은 읍내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이 금반형으로 되었다 하여 유래 되었다.

읍내리의 문화재를 소개 하고자 한다.

十 신창향교(新昌鄉校)

신창향교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 113호로 읍내리 320-3에 있으며, 1997년 12월 23일에 지정되었고, 면적 1,989㎡에 위치해 있으며, 소유자는 향교재단이고 신창향교 전교에 관리하고 있다. 이 건물은 조선 숙종때 건립했다고 하나 기록이 없으며 고종 (1892)에 관학 강화책에 따라 왕경열이 신창현감으로 있으면서 도고산에 있었던 「진주사」라는 사찰을

이건하여 향교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현재도 중국의 사성오현과 이철, 그리고 국내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 제향을 올리고 있다.

十김육비(金堉碑)

김육비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237호로 신창면 읍내리 200번지에 위치해 있고 1기로 1984년 5월 17일에 지정되었고 소유 및 관리는 아산시에서 하고 있다.

이 비는 조선 현종 원년에 김육이 대동법을 주창, 시행한 것을 송덕하기 위해 비이다.

十인취사 석탑(仁翠寺 石塔)

이 석탑은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 235호로 신창면 읍내리 200번지 인취사에 있으며, 석탑 1기로 1984년 5월 17일에 지정되었고 소유 및 관리는 인취사에서 하고 있다. 이 석탑은 묘사체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현재의 탑의 기단부에 사용되는 갑석과 3층의 탑신, 그리고 상륜부의 노반 및 석재가 서로 결합되어 세워져 있다.

十학성산성(鶴城山城)

학성산성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244호로 신창면 읍내리 산 65에 위치해 있으며, 1984년 5월 17일에 지정되었고 소유 및 관리자는 아산시가 하고 있다.

아산시에서 예산쪽으로 약 5km 쯤 가다보면 도로 우측으로 신창면 읍내리가 나온다. 학성산성은 이곳 읍내리 뒷산인 표고 193m의 학성산 정상부에 축조된 석성이다.

十신창척화비(新昌 斥和碑)

이 비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236호로 신창면 읍내리에 있고 석비 1기로 지정일은 1984년 5월 17일에 지정되었고 소유 및 관리자는 아산시가 하고 있다.

이 비는 신창면 읍내리의 신창초등학교의 입구에 세워져 있다. 이 비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실시하면서 병인, 신미양요를 겪자 쇄국정책을 더욱 굳게 하면서 척양의 결의르 다지기 위해 서울 종로와 지방 각처에 척화비를 세웠는데 비에는 「양이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으면 화의인데 화의를 주장함은 맥국이다」라고 쓰게 하였다. 비는 화강암의 비신과 비좌로 되어 있고 비신의 전면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으며, 총고는 147cm이다.

<조사당시 읍내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읍내 마을은 위도 36-46-30, 경도 127-56-1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온양에서 출발하여 예산방향의 21번 도로를 따라 오면 623도로를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남산 마을은 읍내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21번 도로를 따라 예산쪽으로 오다 보면 순천향 대학 앞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마을이다.

금반형 마을은 읍내 마을을 가기 전에 좌측으로 난 205도로의 우측에 있는 우편에 있는 마을이다.

2) 현 황

읍내 마을은 인구수는 남자 238명, 여자 197명으로 총 435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147호수에 이른다. 농업이 14%, 상업 34%, 서비스업 6%, 기타 44%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분포하였다.

남산 마을의 인구수는 총 578명으로 남자 294명, 여자 284명이며, 호구수는 219호이다. 이곳은 마을에 순천향 대학교가 생기기 시작함으로써 예전에 자연 마을들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것이 상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업에 8%가 종사하고 있고 상업에 82%로 종사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및 기타 소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많이 변화하였으며, 기타는 10%에 해당한다.

금반형 마을의 인구수는 총 1396명으로 남자 722명, 여자 674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총 749호에 이른다. 농업 4%에 해당하고 기타 서어비스업이 71%에 해당하는 마을로 마을에 빌라가 많이 들어서 있으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예전에 있던 자연 마을에서는 농업이 32%가 되었지만 지금은 농사를 짓는 세대가 너무 적다.

- 인구 분포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읍내 마을	435명	238명	197명
남산 마을	578명	294명	284명
금반형마을	1396명	722명	674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상업	기타 서비스업
읍내 마을	100%	14%	34%	52%
남산 마을	100%	8%	82%	10%
금반형 마을	100%	4%	25%	71%

읍내마을은 논 30ha, 밭 24ha로 농기계 현황은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경지 면적에 비해 농기계를 적게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 문화시설로는 마을 앰프 시설이 겸비된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남산 마을은 논 11ha, 밭 11.2ha로 읍내리에서 농경지가 가장 적으며, 농기계도 역시 적게 보유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농업이 주업이었으나 지금은 부업화 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마을회관이 2층 건물인데 1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다.

금반형 마을은 논 39ha, 밭 10ha로 문화시설은 앰프시설이 갖춘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읍내 마을	54ha	30ha	24ha
남산 마을	22.2ha	11ha	11ha
금반향 마을	49ha	39ha	10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읍내 마을	1개소	1개소	-
남산 마을	2개소	1개소	마을 독서실
금반형 마을	1개소	1개소	-

읍내 마을의 성씨별 분포도를 보면 이씨, 김씨는 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 마을은 성씨별 분포도를 보면 김씨 37%, 이씨 32%, 최씨 13%로 조사 되었으며, 이곳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숙 및 자취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금반형 마을의 성씨별 분포도를 보면 김씨 22% 이씨 14%, 최씨 4%로 나타났으며, 자연 마을이었을 때 박씨가 가장 많은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이씨	최씨	김씨	기타 성씨
읍내 마을	147호	30호	15호	30호	72호
남산 마을	219호	81호	70호	28호	40호
금반형 마을	93호	3호	3호	4호	83호

- 최고령자

읍내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성겸씨로 82세이며, 남산 마을의 최고령자는 박승례씨로 86세 이시다. 금반형 마을의 최고령자는 서석순씨로 85세이시다.

3) 자연경관

읍내 마을은 신창초등학교가 있으며, 비석이 학교쪽에 있었는데 비가 죽 서 있는게 이색 적이었고, 대동법을 창설한 영의정 김육을 비롯하여 현감 남 언창, 이관하, 이시술, 박상 우, 박순의, 군수 서병익의 선정비가 서 있다. 신창초등학교 안쪽에 신창 향교가 있으며, 신창 향교 뒤편에는 학성산이 있다.

남산마을은 순천향 대학교가 있어 마을의 상권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점포와 함께 하숙을 많이 하며, 대학교의 여름과 겨울 방학때에는 마을에 하숙하던 많은 학생들이 떠나서 마 을이 텅 빈 것 같다고 한다.

금반형 마을은 경희학성 아파트가 순천향 대학교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에 읍내 방죽이 있으며, 마을에는 작은 야산이 있다.

4) 마을 변천 과정

읍내리 마을은 본래 군내면의 지역으로서 신창 고을의 소재지이므로 읍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동, 남산리, 홍문리, 금잔형리, 유기리, 교촌리, 신대리와 대동면의 잉동 일부를 병합하여 읍내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편입되었다. 남산 마을과 금반형 마을은 읍내리에서 1996년 1. 2리로 분리되었다.

5) 입 향

읍내리 마을에 터를 잡고 있는 성씨는 서씨로 지금도 가장 많이 분포되어 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방씨가 있다. 6.25이후 다른 성씨들도 들어와 살고 있다. 향교말 마을에서 가 장 오래 살았던 성씨는 나주 추씨, 정씨, 밀양 박씨등 몇몇 성씨이며, 밀양 박씨는 13대까 지 살고 있으며, 이것으로 볼 때 적어도 마을의 형성년대는 1610년경 약 390년전에 형성 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또한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 인구수가 가장 많아 초등학생 수 가 1,200명 정도 였으나 현재는 겨우 200~300명 정도이다.

남산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은 정씨로 9대까지 내려 오고 있으며, 이것으로 볼 때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700년경 약 27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 된다.

금반형 마을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달성 서씨로 3대까지 살고 있으며, 이것으로 보 아 마을의 형성년대는 적어도 서기 1900년경 약 90년전이며, 원거인 성씨를 알 수가 없 었다.

6) 지 명

十 읍내 마을의 지명

- 북촌 : 읍내 북쪽에 있는 마을.
- 새말 : 읍내 동쪽에 새로 된 마을.
- 아사터 : 신창 국민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
- 주막거리 : 읍내 동쪽 길가 마을. 주막이 있음.
- 향교말 : 읍내 북쪽 마을. 신창 향교가 있음.

- 홍문거리 : 아사디 앞에 마을. 신창현 동헌의 홍문이 있음.
- 객사터 : 신창 국민학교 서쪽에 있는 터. 신창군의 객사가 있었음.
- 공북정터 : 객사 북쪽에 있던 공북정의 터.
- 신창향교 : 향교 말에 있는 신창 향교.
- 인취사 : 학성산 밑 절골에 있는 절.
- 절골 : 향교말 북쪽에 있는 마을.
- 비석거리 : 신창 국민학교 앞 곧 읍내리 297번지 비가 죽 서 있는 길거리. 대동법을 창설한 영의정 김육을 비롯하여 현감 남 언창, 이관하, 이시술, 박상우, 박순의, 군수 서병익의 선정비가 서 있음.
- 신창교 : 읍내 앞에 있는 다리. 1917년에 놓았는데 온양온천으로 통합.
- 공동묘지 : 절골 북쪽 옆에 있는 공동묘지
- 척화비 : 신창 국민학교 교정에 있는 양이를 배척하는 비. 고종 3년 (1866)에 천주교도를 학살하므로 인하여 프랑스의 강화도 침입이 있고 그후 5년 (1868)에 미국 배의 대동강 침입, 8년 (1871)에 미국 함대의 재침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막기 위하여 당시 섭정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 고을에 척화비를 세웠음. 처음에는 이 비가 큰 길가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기었음.
- 옥디 : 옥터 앞에 있는 논. 전 신창현의 옥이 있었음.
 - 十 남산마을의 지명
- 남산 : 읍내 남쪽에 있는 마을.
- 피촌말 : 옥디 남쪽 마을. 전에 백정이 살았음.
- 사직단터 : 읍내 남쪽 동 학성산 남쪽에 있던 신창읍 사직단의 터.
- 성황사터 : 사직단 서쪽에 있는 신창읍 성황사의 터.
- 옥터 : 읍내 말에 있는 전 신창현 옥의 터. 현재 논이 되었음.
- 읍창터 : 북층에 있는 사창의 터.
- 동헌터 : 아사디 아래에 있는 터. 신창현의 동헌이 있었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신창군이 아산군에 병합되매 동헌을 학성면사무소로 쓰다가 1922년에 면소를 오목리로 옮기고 터만 남았음.
- 여단터 : 인취사 남쪽에 있는 전 신창현 여단의 터.
- 예산고개(한티고개, 대티고개) : 읍내 동북쪽에 있는 고개. 온양온천으로 통합.
- 순천향 대학교 : 1977년 순천향 의과대학으로 출발하였는데 지금은 4개 대학에 학생 6,000명을 헤아리는 종합 대학으로 발전하고, 이로 인하여 읍내리가 조용한 대학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 十 금반형 마을의 지명
- 금반형 : 읍내 남동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금반형으로 되었다 함.
- 읍내방죽 : 읍내 남쪽에 있는 방죽. 1914년에 시설함.

7) 전 설

十 학성산의 전설 (읍내 마을)

그 곳에는 마음 착한 처녀와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새 어머니는 친딸이 아닌 소녀를 아버지 모르게 구박하고 미워했다. 소녀가 오로지 의지할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으나 얼마 후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다.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소녀를 죽이고 말겠다고 늘 다짐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소녀와 아들에게 제안했다. 경주를 해서 지는 쪽이 죽으라는 것이었다. 오빠는 높은 신을 신고 서울에 다녀오는 것이고 소녀는 성을 쌓는 일이었다. 오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시작 되었다. 며칠이 흘러 거의 완성이 다 될 무렵 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질 것 같은 생각에 또

하나의 묘안을 생각했다. 긴 시간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소녀에게 많은 양의 밥과 반찬을 주어 밥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거절하지 않고 일을 중단한 채로 시간을 낭비한 소녀는 다시 성을 쌓으러 갔지만, 미리 도착한 오빠를 보자마자 목숨을 끊었다. 놀란 오빠는 어머니의 생각이 잘못되어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을 비판하며 마침내는 동생의 뒤를 따라 죽었다. 그 후에 이곳에는 두 마리의 학이 날아왔는데 마치 사이 좋은 오누이와 같다 하여 학이 날아간 곳, 즉 학성산이라 불리운다.

十 학성산의 당집

신창면 읍내리에 자리잡고 있는 학성산의 꼭대기에는 조그만 당집이 있다. 거기에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민간들이 믿고 있는 영혼의 신의 사진들도 붙여져 있다. 왜 그 산위에 당집을 짓고 제사를 지내느냐하면 옛날에 산에 성을 쌓고 싸움을 하였는데 위대한 명장군들의 영혼이 한이 맺혀 다시 태어나 그 산 위에 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며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을을 내려다 보며 마을을 도운다고 믿어 그 성위에 조그마한 당집을 짓고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영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고 또한 기우제도 지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읍내리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에 제를 올리는데 보름 전부터 준비위원과 책임자들은 부정 한 일이나 몸에 흠집이 생겨서는 안되며, 몸을 깨끗이 하고 주색을 금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마을 입구에 줄을 쳐놓아 부정한 일을 한 사람과 객사한 사람의 상여를 막았고, 잔을 따르는 주관자나 그 외의 사람들은 살생을 금했다. 특이한 것은 제를 지낼 때 생고기를 썼으며, 제가 끝난 후 돼지나 소의 머리에 칼을 꽂아 거꾸로 세워서 세워지면 신이 왔다 가심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가 소홀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성산 꼭대기에는 조그만 당집이 있다. 거기에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리도 마련 되어 있고 민간인들이 믿고 있는 영혼의 사진들도 붙여 있었는데 그곳에 당집을 짓고 제사 지내는 것은 옛날에 이 산에서 성을 쌓고 전쟁을 벌였는데 위대한 명장군들의 영혼이 이 마을을 내려다 보며 마을을 도와준다고 믿어 1년에 두 번, 봄·가을로 영혼을 달래주는 제사를 지냈었다. 이 행사는 지금도 이어져 내려 오는데 읍내리 마을이 모두 주민들의 행사이다. 남산 마을에는 5월 8일경에 경로 위안 잔치를 하고 있으며, 마을에 연반계를 통하여 애경사시 서로 도와주고 있다.

금반형 마을은 마을에 연반계가 있는데 매년 음력 10월 30일에 하고 있으며, 마을 행사로 매년 음력 7월 30일에 마을 안길 보수 및 마을 제조 작업 등 마을 미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서로 협동하여 마을을 잘 가꾸고 마을행사에 모두 합심하며, 참여하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十 김육(金堉 1580~1658 선조 13~효종 9)

조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풍(淸風). 호는 잠곡(潛谷)·회정당(晦靜堂). 1605년(선조 38)에 사마회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으로 들어갔다. 1638년(인조 1)에 충청도 관찰사에 올라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는 한편, 수차(水車)를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구황촬요(救荒撮要)》와 《벽온방》 등을 편찬·간행하였다. 이후 병조참판·형조판서·우참찬·대사헌·예조판서 등을 지냈고 43년과 45년에 중국을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화폐의 구조·유통, 수레의 제조·보급 및 시헌력(時憲曆)의 제정·시행을 착안하고, 《유원총보(類苑叢寶)》 《종덕신편(種德新編)》 등을 저술하였다. 49년(효종 1) 우의정이 되었고 대동법의 확장시행에 적극 노력하였다. 51년 1월에 영의정에 임명되고 겸하여 실록청총제관(實錄廳總裁官)을 맡았다.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는 데 성공하였고, 아울러 민간에 주전(鑄錢)을 허용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대동법의 실시를 한층 확대하고자 <호남대동사무(湖南大同事目)>을 구상하고, 이를 57년 7월에 효종에게 바치면서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저술로는 《잠곡유고(潛谷遺稿)》 《유원총보》 등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貞).

十 이하응

신창국민학교 교정에는 흥선 대원군이 세운 척화비가 있다.

흥선 대원군은 조선 고종 초기의 집권자이며 성명은 이하응, 호는 석과 고종의 아버지다. 철종(1893)이 후사 없이 죽자 조선대와의 일계에 의해 그의 둘째 아들 명복을 왕위에 앉히고 자기는 섭정을 보게 되었다. 왕의 부친으로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오래 쌓여온 폐단

을 일소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과단성있는 개혁을 단행, 우선 안동김씨 일족을 세도에서 몰아내고 악덕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시책으로 일반 평민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호포라 하여 양반에게도 과하였으며, 또 종래의 한국제도를 사창제도로 고치고 관리의 부정을 막았다.

이밖에도 법전의 완비, 정권과 군권의 분리, 의복제도의 개량등 불만한 정치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반면 경복궁 재건으로 인한 무리한 과세등으로 경제계를 혼란케하고 천주교를 탄압하여 무고한 백성과 외국인 선교사를 죽임으로서 백성의 원성을 사고 대외적인 감정을 악화시켰다.

또 세계정세에 어두워 쇠국정책을 함으로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일으켰는데 쇠국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척화비가 세워졌는데 신창 국민학교에 그 중 하나가 세워졌다. 이 척화비가 세워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병인작신미립'이라는 글로 보아 병인, 신미양요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척화비의 크기는 세로 105.5cm, 가로 41.5cm로 직사각형이다. 비의 양측면과 뒷면은 새겨져 있지 않고 전면에만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로 글씨로 써 있다.

양이침범비전즉화주매국(洋夷侵犯非戰則和主賣國)성아만년자손(成我萬年子孫)

병인작행말입(丙寅作幸末立) 이 쇠국정책으로 인해 서양문화 수입에 지장을 가져온 것 등은 씻지 못할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한 국민의 원성과 유학자의 불만이 높아졌을 때 민비는 고종을 조종하여 최익현의 대원군 탄핵의 상소가 올라온 것을 계기로 그를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니 꼭 집권 10년만의 일이었다.

그 후 대원군은 민비를 비롯한 민씨 일파와 암투를 계속하여 정치표면에 나선 적도 있었지만 끝내 정권을 다시 잡지 못했다.

十 이현중

이 현중 외 37명은 6·25를 전후하여 북괴군과 맞서 용전 분투하다가 전사한 우리 아산군 내의 경찰관들이다. 국민의 안녕 질서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얼을 기리기 위해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휴게소에 세워진 충훈탑 안내판과 탑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탑은 지고한 애국과 충성의 표상으로 건국 및 호국 경찰의 사명을 완수하다 산화한 온양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충훈을 봉안 하였다. 8·15 광복후 비운의 역사속에서 반공구국의 투철한 신념과 사명으로 내 일신을 바쳐 각 지구 전투에서 용전타 전사한 38주의 위명과 업적을 추모하여 위령코자 온양 경찰서 직원과 아산군내 경우회원이 합동으로 그 날의 격전지 이곳 신창고개에 38개 계단을 쌓고 38개의 탑을 세워 만세의 빛내고져 건립한 것이다.

여기 아로새긴 당신들의 낮은

살신성인의 증인되시고

구원한 민족사의 등불이시다.

고난과 비운의 구비구비마다

그 뜨거운 충정 가슴에 안고

민족의 제단에 산화하셨네

못다핀 겨레의 영혼이여!

님들의 고귀한 뜻 돌로 세우니

영원토록 이 나라의 파수가 되길

고경감 이현중. 조순화

고경위 광병철 김영준 김윤식 김종석 민병룡 박근환 박병갑 박용규 박재익

박을제 오석근 우영제 유재경 윤병찬 이경승 이광식 이재덕 이재훈

이종환 이필선 정갑준 지춘교 차은식 최용진 최창식 홍종모 황영석

고경사 김도식 김정립 원종무 신태운 이상진 이영삼 이유형 최정남 고순경

정순관

10) 종교현황

읍내 마을의 종교단체로는 기독교 대성감리교회가 40명의 신도가 있으며, 아산향교에는 168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불교에는 인취사가 있어 279명으로 가장 많은 신도가 있다. 특히 인취사는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학성산 동북쪽에 있는 신라 법흥왕 55년(568)에 창건했다고 하나 확실한 기록이 없다. 이 사찰에는 고려말의 탑으로 보이는 3층 석탑과 고려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삼층석불이 있어 이 사찰이 매우 오래된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극락전(極樂殿) 앞에 있는 우물가에는 이조 선조시대에 고승 휴정(休靜) 서산대사가 쓴 일규정(日窺井)이라는 조그마한 자연석비(自然石碑)가 있어 지난날 이 고찰에 고승의 왕래가 잦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절 주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주어 모았다는 삼층석탑은 원래는 3층 이상의 높은 탑이었던 모양으로 인취사 여러 곳에 석탑의 지대석(地臺石)과 옥개석(屋蓋石)이 아직도 흩어져 있으며, 극락전에 있는 관음보살(觀音菩薩), 아미타불(阿彌陀佛), 지증보살(地藏菩薩) 등 삼존 불도 모두 청석으로 조각된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추정(推定)하고 있다. 이 절에 있는 극락전과 요사(寮舍)는 4, 5백년전 것으로 보기 드문 배집형의 건물이다.

11) 공장현황

읍내 마을에는 의약품을 만드는 경남제약이 있고 삼아인터내셔널, 금원 산업, 정우산업, 행운산업, 남신제관, 오원도예, 학산지오라이트, 한양금속도어, 선양화학, 럭키개발, 엘지건설이 있다.

力경남제약: 80-20, 허가일 87.8.20., 면적 12,228 종업원수 121명, 레모나·PM정

力삼아인터내셔널- 72-2, 허가일 87.8.20, 면적 3,179 종업원수 97명

力금원산업(주) : 읍내 80-16 열처리제 허가일 87. 8. 20. 면적 4,745㎡ 휴업중

力정우식품(주) : 읍내 80-13 한의약품 허가일 87. 8. 20. 면적 8,495㎡ 종업원수 50명

力행운산업(주) : 읍내 80-30 PE필름 허가일 87. 8. 20. 면적 3,805㎡ 종업원수 39명

力남신제관(주) : 읍내 80-20 분유캔 허가일 87. 8. 20. 면적 5,555㎡ 종업원수 51명

力오원도예(주) : 읍내 452-9 전통생활도자기 허가일 86.8.25. 면적 1,000㎡ 종업원1명

力학산지오라이트(주) : 읍내 79 탄산음료 허가일 93. 6. 11. 면적 1,993㎡ 종업원55명

力한양금속도어 : 읍내 214-2 철문관련제품 허가일 96. 7. 24. 면적765㎡ 종업원수5명

力(주)선양화학 : 읍내 52-3 포장용플름 허가일 88. 10. 14. 면적 12,000㎡ 휴업중

力럭키개발 (주) : 읍내 58-4 철강제철골스트레이트 허가일 89. 2. 14.

면적 131,829㎡ 휴업중

力엘지건설(주) : 읍내 58-4 H형 가공품 허가일 95. 11. 30. 면적 35,146㎡ 휴업중

12) 마을의 특성

읍내 마을은 대동법을 창설한 영의정 김육을 비롯한 현감 남현창, 이관하, 이시술, 박상은, 박순의 군수 서병익의 선정비가 서 있다. 학교 안쪽으로 향교 말에 있는 신창학교가 있었는데, 신창향교라 일컫는다. 그곳엔 약 300년 가량 되었으며 대성전엔 공자의 위패를 모시었고, 명륜당이 있다. 명륜당은 지금도 향교 학교를 운영 매년 1년에 두차례 학생들의 예절교육 및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 운영해 가고 있다.

남산 마을은 순천향 대학교가 생김에 따라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점차 상업화가 되어 가고 있고 생업도 농업에서 개인 소점포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하숙으로 많이 변화하였고 마을의 상권이 주로 남산 마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남반형 마을은 마을에 작은 저수지가 있고 예전에 자연 마을에서는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자연 마을에서는 박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주로 쪽파와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며, 아직도 훈훈한 인심이 남아 있다.